전능하시면 뭐해 통 안 하시는데

(시편 114:1~8)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2.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3.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4.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전능하시면 뭐해 통 안 하시는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전능하시면 뭐해 통 안 하시는데'
언젠가도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Bruce Almighty)"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브루스는 회사에서 잘리고 하루 종일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다가 하늘을 향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끌림에 의해 들어가게 된 비어있는 빌딩 안에서 청소부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스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의 자리를 대신 맡아보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 대가로 일주일동안 전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전능한 힘을 얻게 되자 제일 먼저 지구 전체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브루스는 그 기도를 다 모아놓고는 'YES'라고 결재를 해버립니다. 수천만 명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세상에는 더 많은 충돌이 생겨날 뿐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브루스는 신 노릇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음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천만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최대의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원할 때마다 그 속에서 죄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판단 등은 모조리 죄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생겨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최선의 다행스러움은 전능한 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해 들어 통 장사가 안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는 걱정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내 삶의 처지를 보면 전능하심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며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능하심을 사용하려고만하지 믿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사가 안 되고 힘든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는 자와 믿는 자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다가올 걱정거리와 문제들을 극복하고 제거하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밀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분께서 왜 내 장사하나를 잘 되게 못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백억 분의 일이라도 나타나면 내 조그만 장사에 흑자나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 아닙니까?'라는 기도는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괴로워 죽게 됩니다. 바라는 대로 전능하심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당면한 걱정거리나 문젯거리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생긴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심은 문제가 생겨난 뒤로 동원되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미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기도할 때에는 지금 주어진 어려움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야 내 삶과 간극이 메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귀환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잡혀갔던 선민들이 수십 년 만에 고국 땅이라는 곳에 돌아와 보니, 이제 그곳은 이방민족들의 터전이 되어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텃세로 인해서 뭐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민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짐 앞에서 이들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조건은 불리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먼저 선민의 정체의식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선민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데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려 할 때에 겪는 어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선민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처지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사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며 성전을 주셨음을 기억해냅니다.

2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실 유일한 곳으로 성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들은 성전을 짓고 관리할 책임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선민들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 전체를 통치의 영역으로 삼으시고 이것을 확장해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하고 부자가 되고 부흥하기만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일시적으로 단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생활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복지에 입성할 때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선민의 정체의식을 되찾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서 무력감과 무능함에 빠진 선민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선민들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민을 다스리실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는 산마저도 떨며 진동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실은 여전히 고국에 자리 잡은 이방민족들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겨낼 군사력도 없으며 돈이 많아서 그들을 매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어보아도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은 듣는 이들에게 스스로 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인격적 관계의 대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영속적이고 견고함의 상징으로 여기는 바다나 강이나 산조차도 깃털처럼 가벼운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는 그 분의 전지전능함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것은 이미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 지금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실수나 오류처럼 여길 수 없고, 나에 대한 사랑을 믿는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제거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면 기껏해야 욥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라는 호소 정도는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욥은 한 마디도 병을 낫게 해달라거나 자녀들이 열 명이나 죽었으니 살려내 달라거나 잃어버린 재산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을 믿었기에 감히 그 상황을 극복할 대상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복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선의 상태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으면 지금의 상황이 그 결과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풀릴 때에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일이 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왜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알려주셔도 저에게는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이길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궁금하니 알고는 싶지만 알았다 한들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현실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마음이 유전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에덴 밖에서 그 공백을 채움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실 때에,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주어지는 이유는 전부 유전 죄의 체질 때문이고, 마음의 공백을 세상의 가치로 채워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곧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자녀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 마음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병만 나으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만족할 수 있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빼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형편을 어렵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포로귀환자들이 해야 했던 일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상황이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부자 되고자 바알을 숭배한 결과로 이러한 현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자신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가 폐허가 되었지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건재하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먼저 기뻐하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포로귀환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도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그 사랑과 전능하심이 삶에서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맨손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켜야 했고, 폐허된 성전과 나라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향하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통해 친히 성벽과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가졌던 풍요와 다산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은 비참한 현실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시인은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민들을 위해 나라를 재건하실 것임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결단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삶에는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기 위해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려하지 마세요. 전능하심은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시고자 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포로귀환자들의 난감한 형편을 통해서 그들의 유일한 살길이자 가장 확실한 살길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임을 오늘 시가 촉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촉구에 상응하는 응답을 함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